



“불국사 창건자 김대성 아니다”

신라문화연구원 학술회의서 주장

최근 석굴암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보존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불국사를 다각도로 재조명하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소장 김갑주) 주최 ‘불국사의 종합적 고찰’ 학술회의가 오는 6일 경주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홍광표교수(동국대 조경학)는 ‘불국사 대웅전 공간구조의 조형적 의미’를 주제로 불국사 중심공간의 중심점이 석가다보야당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자하문-대웅전-무설전을 잇는 남북축에 교차점에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사 발굴조사결과와 추론과 ‘불국사 고금장기’(佛國寺古金創記) 소전(所傳) 대웅전에 봉안된 석가주존 등 5구상의 복장기 내용에 주목하고, 《삼국유사》 ‘고창전’(古鄕傳)에 전하는 신문왕대에 김대성이 창건했다는 내용은 당시 금산사, 봉은사 등의 개창을 참견으로 기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국사 개창을 참견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강근교수(경주대 문화재학)는 논문 ‘불국사의 불전과 18세기 후반의 재건역(再建役)’에서 그동안 진행돼 온 불국사 창건의 역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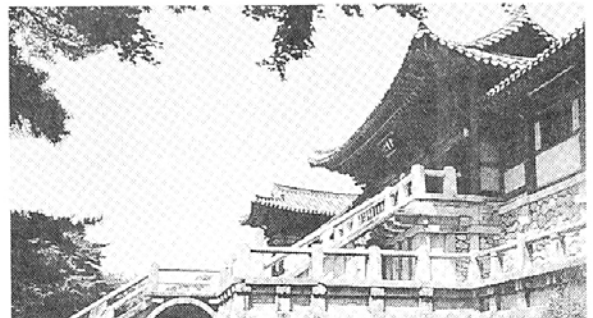
문무왕 말년~신문왕 원년 최초 불사 ‘조선후기 중창’ 역사적평가 받아야

홍교수는 불국사가 탐으로부터 금당으로 조영의 중심성이 전이되어 가는 탐·금당병립형 사찰임을 설명하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계속 중창되면서 외부로 확산되는 것과 정사각형의 각 변에 대웅전, 자하문, 석가탑, 다보탑 등과 같은 건축선들이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불국

박씨는 불국사의 조영이 통일신라시대에 적어도 세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8세기 중엽 김대성의 조영 이전에 그 전신이 되는 사찰이 비로전지에 있었다는 지난 68년 불국

불교사 고찰의 범주를 벗어나 사찰 경계가 어려웠던 조선시대 후반기에 이뤄졌던 사찰의 중창노력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교수는 1750년과 1765년에 각각 재건된 극락전과 대웅전에 주목하고, 이 가운데 8세기 창건의 하부구조 위에 18세기 중창의 상부구조를 세운 독특한 양식의 대웅전은 그 내외장임이 18세기 불전가운데 단연 뛰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의 두 불전(대웅전·극락전)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라시대에 우뚝선 불국사의 상징 불국사. 최근 불국사의 의의를 재평가하려는 노력이 학계에서 일고 있다.

한영우 기자

문화유산 바로세우기

성보문화재 재평가 의미

이들중 국보로 승격된 성보로는 익산왕궁리 오층석탑(보물 제44호)과 통도사 대웅전,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보물 제140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보물 제195호).

단층 기단 위에 세워진 석탑인 익산왕궁리 오층석탑은 백제시대 건립된 익산비로자지석탑의 결함을 보완, 그 조형형식을 답습해 창작된 탑이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통도사 대웅전의 경우는 구조의 특이함과 종교적 정신배경에서 볼 때 국보급 가치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 금강계단을 포함해 국보로 재평가됐다. 또 오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로 환원됐다. 보광사중창비(보물 제107호) 역시 비의 주인공이 보광선사이므로 이름이 삽입돼야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보광사대보광선사비(普光寺大普光禪師碑)로 개칭됐다.

문화재위원회는 또 해인사대장경판교(大藏經版車·국보 제52호)의 경우 일제 강점기때 한국의 정통정신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따라 해인사경판전을 몰종창고와 같은 뜻의 경판고로 지칭해 성보문화재의 격을 격하시켰다는 판단하에 해인사대장경판전(海印寺大藏經版殿)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문화재 가치 평가 기준에 바로 잡

통도사대웅전 구조 특이·높은 종교가치 인정
왕궁리오층탑 익산 비로사지석탑 결함 보완
최고의 한국 서적·보존성 양호 **상원사권선문**
오랜 전통미·고졸한 미소 일품 **금동관세음상**

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은 세조와 세자 및 문신 그리고 학승들의 수결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래된 한국서적이며 보존상태도 완벽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국보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세음보살입상은 오랜 전통과 고졸(古拙)한 미소가 내면의 정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국보로 승격해도 손색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명칭이 변경된 봉선홍경사비갈비(奉先弘慶寺碑)는 비문에 사적갈비(事蹟碑)로 되어있어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碑)로 바꾸었으며, 왕각사비(보물 제3호)는 비문에 ‘대원각사’(大圓覺寺)라는 명확한 기록이

나다고 밝혔다.

한편 중조사지삼층석탑(보물 제5호)은 기단부와 탑신의 비가 치이는 등 조형적 측면에서, 안동안기동석불좌상(보물 제38호)은 통일신라시대로 보고 있는 제작연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상주북쪽석불좌상(보물 제119호)은 보물급으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각각 지방문화재로 재조정됐다.

이들외에도 용감수경(龍龜手鏡·보물 제130호)과 청화백자철사진사육화문병(靑華白磁鐵砂辰砂菊文瓶·보물 제241호)이 각각 국보로 승격됐으며, 서울 남대문(국보 제1호)이 서울송례문(崇禮門)으로, 서울동대문(보물 제1호)이 서울흥인지문(興仁之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

남장사
보광전

報化非眞妄緣(보화비진로망연)
法身清淨廣無邊(법신청정광구변)
千江有水千江月(천강유수천강월)
萬里無雲萬里天(만리무운만리천)

보신과 화신이 참이 아닌 망연된 인연인 줄
요달(了達)하면
청정한 법
신은 가이 없이 넓고 넓네
천갈래 갈마다 물이 있다면 천갈마다 달이 떠 오르고
만 리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청정 하늘은 만리에 뻗네

해설 남장사는 진감국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신라 흥덕왕 7년(832) 창건 됐을때는 장백사(長柏寺)라 했는데 각원화상이 명종 16년(1186)에 현재의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그리고 보신을 말한다. 보신이란 과보와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 불신을 뜻한다. 화신이란 응신 변화신 응신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형상으로 변화하는 불신을 의미한다. 법신은 자성신(自性身), 법성신(法性身)이라고도 하는데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주련은 이같은 불성의 형상이 진정한 인연이 아니고 우주에 가득한 법성이 중요한 인연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우주법계에 두루 존재하는 법성을 깨우쳐 아는 것을 참된 인연(성불의 인연)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천장에 하나의 달이 비치는 것이나 구름 한점 없애 만리를 푸르든 하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형상 아닌 법성을 보아야 참된 인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십이지 3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106호)의 상층기단부 면적2개가 도난당한 채 지난 25일 발견됐다. 팔부신장이 양각된 가로 50cm, 세로 70cm, 두께 11cm 크기의 기단석 2개가 빠진 곳에는 돌과 나무 등이 채워져 있었으며 경찰은 전문도굴범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탑은 절터로 추정되는 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곧 긴급보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Berkeley Buddhist Research Center
柏克萊佛學研究中心

Welcome to the Home Page of th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the Berkeley Buddhist Research Center.

As we are working hard to bring new features to our site, you might want to bookmark it and check in periodically. Suggestions for refinements are appreciated. If you come across any links in this site that are not working properly, please let us know. Updated November 24, 1995

Table of Contents

Group in Buddhis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uddhist Manuscripts and Resources Directory
Publications
Electronic Publications
Joint Project with Center for Buddhist Studies, National Taiwan University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버클리 불학연구소

버클리대(캘리포니아, 미)에서 제공하는 학술 사이트인 ‘버클리불학연구소’는 인터넷 테크놀로지인 ‘웹’을 이용 지리적 여건을 초월해 불학연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불교연구를 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교학술 관련 정보에는 △불경·비문 연구 △불교사적(버클리대) △불교관련 회의 자료 △관련 사이트 링크 △불교연구소(버클리대) 등이 있다.

‘불경·비문 연구’에서는 국제인도학회에서 제공하는 원시경전의 전자본과 CD 타이를 (방산석경비각집성(中國唐石經經錄集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알려주고 있다. ‘불교사적’에서는 버클리대

에서 출간한 불교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본도 있다. 이들 서적 중에는 김희성 교수의 <지눌과 한국禪 전통>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제불전단체(EBTI)·호주국립대·미국종교학회 등의 불교관련 사이트 총 28개와의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중으로 된 ‘불교연구소’에서는 인도·중국·일본불교와 관련해 진행된 연구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다.

또 미국 학계에서 주목받는 불교관련 교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한국인 박사배 교수(뉴욕주립대)도 소개되어 있다. 이 사이트 주소는 ‘http://garnet.berkeley.edu/~yaoming’이다. <우>

나원리 5층석탑 원형 훼손
복원후 기단석 변색 땀질식 보수 드러나

지난 7월 해체복원한 경주 나원리 5층석탑(국보 제30호)이 복원후 기술미숙 등의 결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굴꾼에 의해 탑신이 훼손돼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한 나원리 5층석탑의 파손된 탑신 등의 석재를 화강암으로 교체했으나 1층 기단석 모서리 4군데와 2층 기단석 3군데 등 심여군데가 검은색을 띠는 등 원래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이중으로 된 기단석 곳곳의 틈새를 매우기 위해 알루미늄 조각을 끼워넣는 등 복원 공사 자체가 어설피고 조합해 오려려 석탑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십이지 3층석탑(경북도 유형문화재 106호)의 상층기단부 면적2개가 도난당한 채 지난 25일 발견됐다. 팔부신장이 양각된 가로 50cm, 세로 70cm, 두께 11cm 크기의 기단석 2개가 빠진 곳에는 돌과 나무 등이 채워져 있었으며 경찰은 전문도굴범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탑은 절터로 추정되는 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곧 긴급보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구황동 분황사 3층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보호를 위해 오는 97년초부터 사찰앞 도로에 5인승 승합차 이상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중순 1953년부터 탑신에 균열이 간 분황사 모전석탑이 차량통행으로 인해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에 따라 경북도에 분황사 정문 앞 도로의 차량제한을 지시했다.

경주 분황사탑 인근도로 내년부터 차량통행 제한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쌀 은 밥맛이 다릅니다.

활성탄 농법으로 생산된 쌀에는 농약과 제조제의 독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특이한 쌀입니다.

옛날 햅쌀밥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고소한 맛과 향의 미각을 통해 활성탄 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광복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는 생명으로의 농업, 생명으로서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된 쌀의 양이 많지 않아 백화점과 미곡 상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직매장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택배를 해드립니다.

활성탄 쌀을 구입하시면 물 사랑 땅 사랑의 환경 운동과 농촌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랑의 실천도 됩니다.

(사)광복회 활성탄 농법 연구회
전화 : 553-0089
558-0049
448-6562
512-6077

매일 읽고 쓰면 매일 똑똑 기억되는 **每日漢文**

漢字 를 모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길

주요내용 : 한자의 기본회과 변에서부터 우편사용법, 한자의 역사, 한자 방정식 同子異音, 同子異訓 등 단계적으로 쉽게 익힐수 있도록 편집

※ 一日一言 오늘의 강좌 생활인의 죄우 명, 고사성서, 토막상식, 고전의 세계 등

국어사전속에 한자로 된 우리말이 70%

주문 : 교재대금 10,000을 입금시키면 즉시우송 안내 해드립니다.

국민은행 067-21-0710-091 안용식
상담전화 448-6562
한빛다비드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밖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어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5 바라밀

주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